

2026 춘천마임축제 마임프린지 심사 결과 공고

2026 춘천마임축제 마임프린지에 함께 하신 모든 예술가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심사단과 시민심사단의 심사를 거친 수상팀을 발표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사)춘천마임축제 이사장

□ 2026 마임프린지

- 총 참가팀 : 10팀
- 심사일시 : 2026. 5. 31.(토)
- 장르 : 마임, 무용, 마술, 서커스, 신체극, 파이어 퍼포먼스 등
- 심사위원 현황

전문가 심사	총 3명 조성진 (한국마임협의회 前회장) 마테오 초니니(토리노 국제 마임축제 예술감독) 정은경 (연극 연출가)
시민 심사	8명(사전모집)

- 심사기준
 - 작품성, 예술성, 창의성, 향후 발전 가능성, 소통력을 기준으로 심사 진행.
 - 각 공연 점수의 평균을 내어 전문가 심사(70%)와 일반시민 심사(30%) 평가를 합산하여 최고 점의 작품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선정함.

□ 2026 마임프린지 결과

수상내역	공연팀	공연명	총점
대상	기역시웃	당기시오	96.2
최우수상	미셋	금방 갈께	91.1
우수상	극단 마술사나무	유니크&매직	90.3

□ 심사총평

2026 마임프린지는 총 10개 작품이 참여하여 각기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관객과 만났습니다. 올해는 기존 축제극장몸짓에서 진행되던 마임프린지가 도깨비난장 현장으로 무대를 옮기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고, 공연자들은 열린 축제 공간 속에서 자신만의 언어와 몸짓으로 관객과 직접 호흡하며 마임프린지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여한 작품 대부분이 높은 완성도를 갖추고 있었으며, 표현 방식과 소재는 서로 달랐지만 저마다 분명한 메시지와 개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관객과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진 공연들은 예술이 단순한 감상의 대상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습니다.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술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마임프린지의 작품들은 그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몸으로 보여주었으며, 관객에게는 새로운 시선과 감정을 선물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 준 모든 공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마임프린지를 함께 만들어 준 모든 예술가들의 도전과 열정이 있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임프린지가 새로운 예술가들의 시작점이자, 관객과 예술이 만나는 살아있는 현장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심사위원

조성진 (한국마임협의회 前회장)

마테오 초니니(토리노 국제 마임축제 예술감독)

정은경 (연극 연출가)

□ 문의

· (사)춘천마임축제 공연팀 033-244-7556 (평일 10:00~18:00)